

대선 D-2 전국 민심 기행

<상>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 제주

“먹고 살기 힘들어 선거 관심 없어요”

“정권 교체 된다면...” 열기 뜨거워

■ 대구·경북

▷대구=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볼때 '일방적인 싸움'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신기운 싸움이라는 이른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대선 보다는 오히려 총선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냐는 소리가 들린다. 실제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예비자들이 특정당 주변에 몰려들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선 판세가 이렇다보니 선거열기 또한 되레 식어가고 있다. 대구·경북에서만큼은 통합민주당 등 지지율이 낮은 후보 진영의 선거전이 예견된 판도가 바뀌기는 어렵고, 열기도 별로다. 총선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북=대선을 5일 앞둔 경북의

민심은 사실상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로 결점이 난 듯하다. 남은 관심은 이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정도이다. 그래서 의견상 '재미없는 선거'로 비쳐질법에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경북의 민심이 이렇게 이명박 후보 일변도로 굳어지고 있는 이유는 여는 정권 때보다도 힘들어진 살림살이 때문이다. 상당수 유권자들은 '민주·평화·개혁세력'이란 말 자체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일 정도다. 안동에서 건설업을 하는 박경환(47)씨는 "여권이 자처하는 민주·평화·개혁세력이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무엇을 보태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간 쏟아진 말 잔치에 이제 지쳤다"며 정권교체에 대한 바람을 털어놓았다. 영주시 단상면에서 별정우체국을 하고 있는 이방촌(52)씨는 "이제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노인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이명박, 이회창 두 사람 중 누가 되는 정권교체만 되면 상관없다는 노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매일신문=이종규·정경훈 기자 jongku@



지난 12일 경북 영주시 일번가 1길에서 열린 모 정당 대선 후보 거리 유세에 수많은 열성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채운 채 후보 유세를 듣고 있다. /연남뉴스

이회창 출마에 지역 표심 동요

■ 부산·경남

▷부산=부산은 한나라당의 핵심 지지기반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텃밭'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명박 텃밭'이라고 하기엔 걸리는 대목이 많다. 우선 지난 대선 후보 경선을 보더라도 조직에서 절대적 열세였던 박근혜 전 대표(5천789표)가 오히려 이 후보에 500표 이상 앞섰다. 특히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등장은 지역 표심에 동요를 가져왔다. "2번(이명박)이 아니라 12번(이회창)을 찍을 겁니다. 욕을 덜 먹고 싶잖아요. 지난 대선때도 이회창을 찍었어요" 물론 이명박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도 상존한다. 김모(55·인테리어업)씨는 "빌 사람을 찍겠다"고 했다. "도덕성? 과거 대통령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도둑질 많이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믿어야죠" BBK 수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에 대한 불안심이 지역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씨의 말에서 짐작되듯, 이같은 불안감이 표의 향방까지 바뀌는 계기는 추후력이 부족해 보인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9개 유력 지역일간지로 구성된 한국 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은 이를 앞두고 임박한 제17대 대선과 관련 '전국 민심 기행'을 통해 각 지역의 막판 표심을 살펴본다. 지난 10월 29~30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번 민심 기행에서는 각 지역 정치부 기자들이 도심과 시장, 공원, 대학 등 구석구석을 누비며 유권자들을 만나 포착한 민심을 ▲대구·경북, 부산·경남, 전북·제주 ▲수도권·충청권·강원 등 두 차례로 나눠 싣는다.

▷경남=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의 우세지역인 경남지역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독주라 할만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나온 각종 언론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후보는 경남에서는 50%를 넘는 지지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출마 후 요동치던 경남의 표심은 검찰의 BBK 수사 발표 이후 기세가 꺾이고 있다. 보수세가 강한 경남에서 이회창 후보의 출마는 경남지역의 판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회창 후보 출마선언 직후인 지난 11월 7일 첫 실시한 지방신협회 4차 여론조사 때 이 후보의

부산·경남지역의 지지세는 23.7%(이명박 39.5%)로 대선·총선 지역 다음으로 높게 나올 정도로 경남지역 보수층의 표심을 흔들며 놓았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실시한 5차 여론조사 때 경남지역의 이 후보 지지율은 16.8%(이명박 44.1%)였고 지난 11일 실시한 6차 때에는 15.5%(이명박 49%)로 15% 안팎에서 주춤하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이회창 후보를 제치고 2위 올라서는 등 약간 반등했지만 지난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경남에서 받았던 지지율에는 크게 못 미친다. /부산일보=김기진기자 kkgj99@ /경남신문=이상규기자 sklee@

선거법 퀴즈 풀고 상품도 타고

광주일보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현상퀴즈를 실시합니다. 선거법 현상퀴즈는 매주 월요일 한번씩 출제되며 두 문제를 모두 맞춘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 1명에게 고급 진공청소기를 우승해 드립니다. 문 1)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군·시·군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 틀린 것은? ①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②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이 있다 ③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할 수 있다 ④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무효이다 문 2) 선거일에 투표소에서의 투표한 것 가운데 유효한 기표는 어느 것일까? ①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으로 날인 ② 볼펜으로 동그라미 표시 ③ 모든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 ④ 한 후보자의 기표란에만 3번 기표 *응모요령=엽서에 문1)과 문2)의 정답을 적어 <우편번호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 광주정보사 편집국 선거법퀴즈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금요일 소인받까지 유효합니다. *지난주 정답풀이 문 1)다음주 대통령선거기간중에 개최가 가능한 모임은? (정답①) ① 향우회 ② 주민자치위원회 ③ 반사회 ④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문 2) 다음주 선거운동기간중에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정답④) ① 무료 교통편의·식사 제공 ② 호별방문 ③ 상대후보자 비방 기자회견 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지난주퀴즈 당첨자: 김인주 광주시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 104동 905호

光州日報社 2007년 12월 17일 선거법퀴즈위원회

지역구도 약화... '쏠림' 현상 안보여

■ 전북

정동영 후보의 텃밭인 전북은 정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처럼 일방향 '쏠림'현상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 두 차례 대선 때와는 달리 지역구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동영 후보의 지지율 정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선 사상 처음 전북 출신 후보를 배출했지만 당선가능성이 낮아졌다 선거에 대한 무관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장 민심파악의 첨병이라 할 수 있는 전주지역 한 택시기사는 "예전 선거와 달리 요즘은 대통령선거를 얘기하는 승객이 많지 않은 실정"

이라며 선거무관심을 대변했다. 때문에 범여권의 길거리 유세전도 예전같은 열기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 여론조사 공표급지를 앞둔 지난 11일 전북일보를 비롯 전국 9개 대표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실시한 제6 여론조사 결과 정동영 후보의 도내 지지율은 54.3%로 도민 10명중 5명 정도만 지지했다. 이는 지난 15대와 16대 대선 당시 김대중·노무현 후보의 지지율 70%대에 크게 못미치는 데다 90% 이상 득표율과는 현저히 괴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에 도민들이 13%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여 이전 대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북일보=김현기기자 kanghy22@

"큰 이변 있겠어요" 무덤덤

■ 제주

19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선출 이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직선제로 치러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주지역의 1위 득표자는 모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제주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리서치 앤 리서치가 공동으로 지난 9~10일 제주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40.6%의 지지율로 보름여 전에 비해 9.5% 포인트 상승했다. 정동영 후보도 보름여 전에 비해 5.1% 포인트 상승하며 21.5%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회창 후보는 종전 19.7%에서 7.6% 포인트 하

산행안내. 12월 17일(월) ▲광주신문사(월) 전남 광안교수원 산 12월 17일(월) 08시 광주교수원 1회 회관 후문 경유) 출발 http://cafe.daum.net/ppjps555 T.011-632-7676, 011-633-9248

금당부동산. 07시30분 광주역 출발 T.016-611-1503 ▲비두라산악회 전남 현순 노후산 등반산행(현제성) 12월 23일(일) 08시 광주역출발 *다다음카피>산악회 T.011-640-0871 ▲산악회 전남 현순 노후산 12월 23일(일) 08시 광주역출발 *다다음카피>산악회 T.011-619-4609, 010-7677-3253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문제로운 기회!!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현대고시학원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 78년 국가+지방직 시험대비, 통계방학 대강좌! = 79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 교행, 세무, 관세, 법, 검찰, 교정, 호송, 소방, 전자, 지, 특, 검, 독, 불, 통, 리, 학.

2008 공무원 겨울방학 대특강.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기합이 힘겨워!! - 한빛이 응원합니다! 2008 공무원 합격설명회 1차 12월 17일 2차 12월 22일